

30, 40대 남성 근로자의 심뇌혈관질환 인식, 예방에 대한 태도, 건강행위실천에 관한 연구

The relationship among cardiocerebrovascular disease knowledge, attitude, health behavior among aged 30s, 40s male workers

안 성 아*, 오 은 진**, 공 정 현**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Ahn seong-ah, Oh eun-jin, Kong jeong-hyeon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요약

본 연구는 30대, 40대 남성 근로자의 심뇌혈관질환 인식, 예방에 대한 태도, 건강행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건강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30,40대 남성 근로자의 건강행위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G도 J, S시에 소재한 회사에 근무하는 30대, 40대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심혈관질환 인식, 뇌혈관질환 인식, 예방에 대한 태도, 건강행위 도구를 통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평균 평점은 심혈관질환 인식 정도는 17.99점, 뇌혈관질환 인식 정도는 5.21점, 예방에 대한 태도는 3.95점, 건강행위 정도는 2.82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심혈관질환 인식, 뇌혈관질환 인식, 예방에 대한 태도는 건강행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건강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상태, 심혈관질환 인식 순이었으며, 전체 설명력은 14.6%이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행위의 교육적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심뇌혈관질환의 관리를 위한 예방실천행위는 30대, 40대 부터 조기에 생활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심뇌혈관질환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여야 한다 [1]. 이에 본 연구는 30대, 40대 남성 근로자들의 심뇌혈관질환 인식 정도와 예방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건강행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여 업무상 사망자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식과 예방에 대한 태도, 건강행위실천에 대해 알려 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실천행위에 대한 실천적인 자가 관리에 대해 알려 줌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행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촉구하고 심뇌혈관질환 발생 예방에 대한 교육 중재나 대상이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목적

2.1 대상자의 심뇌혈관질환 인식, 예방에 대한 태도, 건강행위 정도를 파악한다.

2.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인식, 예

방에 대한 태도, 건강행위의 차이를 파악한다.

2.3 대상자의 심뇌혈관질환 인식, 예방에 대한 태도, 건강행위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2.4 대상자의 건강행위 정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일 지역 남성 근로자들의 심뇌혈관질환 인식, 예방에 대한 태도, 건강행위를 파악하고, 건강행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본 연구 대상자는 2015년 10월에서 11월까지 경남 지역의 일 도시에 소재한 3개 사업장에 고용된 30대, 40대 남성근로자 총 232명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표본 수는 표본 수 계산 프로그램인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 정도의 효과 크기인 .15, 유의수준 .05, 통계적 검정력 .80으로 산출한 결과 최소 191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심뇌혈관질환 인식, 예

방에 대한 태도와 건강행위실천은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방법을 이용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 인식, 예방에 대한 태도와 건강행위실천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증은 s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건강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각 관련요인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1 연구도구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설문지 내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8문항, 심뇌혈관질환 인식 12문항, 예방에 대한 태도 9문항, 건강행위실천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Ⅲ. 연구결과

대상자의 심뇌혈관질환 인식은 평균 39.52점, 예방에 대한 태도는 평균평점 3.95±0.54점, 건강행위실천 정도는 평균평점 2.82±0.57점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대상자의 주요변수 수준

변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심뇌혈관질환 인식	39.52	0.56	.872
심혈관질환 인식	17.99	4.25	.723
뇌혈관질환 인식	21.53	5.21	.864
예방에 대한 태도	3.95	0.54	.903
건강행위 정도	2.82	0.57	.787

대상자의 심혈관질환 인식은 뇌혈관질환 인식($r=.645$, $p<.001$), 예방에 대한 태도($r=.277$, $p<.001$), 건강행위실천($r=.219$, $p<.01$)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뇌혈관질환 인식은 예방에 대한 태도($r=.232$, $p<.01$), 건강행위실천($r=.343$, $p<.001$)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으며, 예방에 대한 태도는 건강행위실천과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r=.325$, $p<.01$)(표 2).

표 2. 연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변인	심혈관 질환 인식	뇌혈관 질환 인식	예방에 대한 태도	건강행위 실천
심혈관질환 인식	1			
뇌혈관질환 인식	.645**	1		
예방에 대한 태도	.277**	.232*	1	
건강행위 실천	.219*	.343**	.325*	1

***: $p<.001$, **: $p<.01$, *: $p<.05$

건강행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심혈관질환 인식($\beta=.195$), 결혼상태($\beta=-.257$)이었다. 즉, 심혈관질환 인식이 높을수록, 기혼일 경우 건강행위실천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심혈관질환 인식, 결혼상태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은 14.6%이었다($F=6.640$, $p<.001$, $R^2=.253$)(표 3).

표 3. 건강행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N=232)

독립변수	B	SE	β	t	p
(상수)	2.899	.337	-	8.59	<.001
심혈관 질환 인식	0.026	.001	.195	2.335	.020
뇌혈관 질환 인식	0.003	.010	.027	.298	.766
예방적 태도	-.107	.073	-.101	-1.477	.141
결혼상태	-.279	.073	-.257	-3.829	<.001
근무부서	.223	.077	.186	2.905	.004
심뇌혈관 질환가족력	.035	.079	.028	.442	.659
주관적 건강상태	-.050	.050	-.063	-1.008	.314

Durbin-Watson=2.106, F=6.640, $p<.001$, $R^2=.253$, Adj-R²=.146

** : $p<.01$, * : $p<.05$,

IV. 결론

본 연구는 G 지역의 일 도시에 소재한 3개 사업장에 고용된 30대, 40대 남성 근로자를 심뇌혈관질환의 인식과 예방에 대한 태도 및 건강행위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한 결과는 연구대상자들의 심뇌혈관질환 인식, 태도는 높았으며, 건강행위실천 정도도 중간정도의 수준이었다. 심뇌혈관질환 인식, 예방적 태도 및 건강행위실천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 건강행위실천의 영향으로는 심혈관질환 인식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들로서 국한하여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보완한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30대, 40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심뇌혈관질환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김현미, 최연희, “생산직 근로자의 연령별 노후준비와 영향요인”, 한국산업간호학회지, 제19권, 제2호, pp.117~127, 2010.